



미세먼지와 공해로 시공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서울 거리. 가톨릭평화신문 제공

이 빵보다 중요하다”라는 언급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197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생소한 사회문제 주제였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에서 ‘환경의 문제’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현재 물은 중요한 지구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제

로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3면이 바다지만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경우는 0.8%에 불과하다고 하죠.

지구의 환경문제는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5년 생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했습니다. 이 회칙은 인류 공동의 집

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생태적 회심으로 피조물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서도록 이끈 ‘21세기 생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반포되어 파리 기후협약 및 기후 위기에 대처해야 할 국제사회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오염, 쓰레기, 버리는 문화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서 “버리는 문화는 물건을 쉽게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소외된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최소화, 소비 절제, 효율 극대화,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사람들이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덜 탐



2011년 03월 11일 일본 북동부를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 여파로

미야기현 나토리(名取)에 쓰나미가 덮친 가운데 나토리 강이

범람하고 곳곳에 화재가 발생해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다. 가톨릭신문 발췌

